

W\_F\_062

## 한복 입은 여자로 둔갑한 도깨비

2016년 10월 22일,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, 이현정 조사.  
김옥종(남, 1924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**[조사자]** 이 동네에서는 도깨비 봤던 한 애긴 엇입니까?

**[제보자]** 옛말에. 잊어.

**[조사자]** 잊어마씨? 헤 주십서.

**[제보자]** 저, 맘물 쪽으로, 내려온 건 직접 우리 할망이.

**[조사자]** 할망이.

**[제보자]** 응, 본 건디. 그 우리 셋처남, 아, 저, 족은처남 각시라. 그 온펭리 사람인디. 그 어른이 주식을 나니까 젖이 안 나와. 경 허니까 이제. 그, 어디 맘물 물을 짜여 당, 나는 물, 나는 물을 짜여당 먹으민 젖 나온덴 헹 그리 헹 말이 잊이라라. 그 물 짜레, 시누이 성제가 갓어. 강, 으데 가믄 그 지척 양혜장 그 짓은 에염에 밧 이 잊는데. 그 밧이 땅이 바닷물 들, 저, 것이라라 좀 높으게 쌓어. 거난 나는 물 을 짜레 밤이 사, 그, 이, 사람 엊을 때, 아니 다, 보일 때 가는 거지. 사람 보이 민 안 웬다 헷어.

**[조사자]** 부정타부난예.

**[제보자]** 응. 사람 안 보인 정도로 헨, 밤중에 갓어. 갖는다. 아이, 뭣이, 저, 곤대바구리 잊잖아. 저게 저, 저거, 저.

**[조사자]** 예, 예.

**[제보자]** 저거 헹그네 옆동에 찌곡, 곱닥허게 치메 저고리 한복 입은 여자가 들어오거든.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 할망은 밧더레 그 담 에염드레 굽안 ?만이 보니까. 쭈욱 허게 일어나서 이 앞짝 들러레 들어오더라 혜연. 곤대바구니 쪽으로.

**[조사자]** 겐?

**[제보자]** 그, 그, 그.

**[조사자]** 그게 도깨비라?

**[제보자]** 도깨비.

**[조사자]** 아, 그 밤에?

**[제보자]** 밤에. 계단. 그. 거시기 오기 가민은 지금 집이 잊어. 저. 그. 좀 지금 불교 짓은 할망이 그기 사는다. 그 집이 잊어. 그디 옛날에. 그. 부침이 살아낫어.

**[조사자]** 부침이?

**[제보자]** 어. 부○○이엔 헌 분이. 근디 원래가 그 사람이 왜정 대부떠 운전수 징을 헌 거라. 일본서부떠도. 그. 또 낭중에 일본 그. 전쟁 때에 저. 거시기 또. 운전수로 헤연에 늘. 군인 생활하고 헤난 사람인디. 그. 이. 오기 살명 이젠. 그. 옛날 차 하나. 한 차 사네. 옛날 도요다엔. 헌 차가 있어. 거 산. 그 운용을 헷어게. 헨디. 그 사람이 뭐냐 허면. 구신이 뭐 있느냐고 엇댄혀. 헨디 그 앞으로 득. 도. 도깨비 가 이레 들어오거든.

“하하, 오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!”

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. 그 사람 지금 우리보다 훈 예서일곱 나 우인디. 죽 어비였지. 그 동생은 오디 저 도로가에 그 지름집이 동생은 살고. 그 원래가 그 사람이 ‘구신이 뭐 있느냐’고.

결국은 그걸 보니까.

“하이고, 이거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!”

**[조사자]** 겐 그 부침에 그 부씨 어르신도 그. 귀신을 본 거구나.

**[제보자]** 본 거주. 봐 부난. 하 이. 그. 저 ‘있는 거로구나’ 헷지.

**[조사자]** 어떻 도깨비는 경 곱닥한 여자만 경 나타나는 건고마씨?

**[제보자]** 그. 몰르주. 어떻게 되는 것이.

- 핵심어 : 여자, 둔갑, 도깨비, 한복, 구신(귀신), 부침